

첫 자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학령전기 가정양육환경의 종단적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First-time Mothers' Social Support and the Home Environment for Preschoolers: The Mediation of Depression

장영은¹

Young Eun Chang

ABSTRACT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early social support of first-time mothers on the home environment for their preschool-aged children via the mediation of mothers' depression. The study sample included 755 first-time mothers participating in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longitudinal structure from mothers' social support when the child is one year old to the quality of the home environment when the child is 4 years old was examined. The results revealed that mothers' social support at age 1 predicted social support at age 3, which in turn predicted higher quality of the home environment for their children at age 4. The mediation of depression was also significant. Mothers' social support predicted lower levels of depression at both phases and mothers'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the home environment.

¹ 제1저자(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e-mail : yechang@cau.ac.kr)

▶ **Key words** Social support, Depression, Home environment, Longitudinal study

I. 서론

자녀의 출생과 함께 어머니는 자녀 양육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영유아기는 자녀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로서 어머니는 자녀의 변화에 따른 양육지식과 적절한 양육환경의 구성과 같은 발달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Bigner & Gerhardt, 2013; Shaw & Bell, 1993). 특히 첫 자녀의 어머니의 경우, 이전에 수행해보지 못한 부모역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자녀의 변화에 대한 심리적 우울이나 자신감 저하를 느낄 수 있다(Bigner & Gerhardt, 2013; Cutrona, 1984). 따라서 첫 자녀의 탄생과 함께 부모기로 전환하는 과정은 가족이 경험하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첫 자녀의 출생은 자연스러운 가족과정의 일부이지만 스트레스의 근원인 동시에 가족의 대처능력을 시험하는 사

건이다(LeMasters, 1957). 신생아기 자녀로 인해 기존의 생활리듬이 깨지고, 수면부족과 신체적 피로를 느끼게 되며, 스트레스와 책임감이 증가하게 된다(권경숙, 2008; 이대균, 황주미, 2008). 한편 첫 자녀 어머니와 둘째 자녀 어머니를 비교한 Krieg(2007)의 연구에 따르면, 둘째 자녀라고 해서 양육 자체가 더 쉬워지지는 않으나,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 및 역할의 변화를 처음으로 겪는 첫 자녀의 부모는 더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직면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때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우울을 경감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이영환, 한영숙, 2005; 천희영, 옥경희, 2011), 더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Armstrong, Birnie-Lefcovitch, & Ungar, 2005; Ceballo & McLoyd, 2002). 따라서 첫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를 통해 바람직한 양육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학령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양육에 대한 연구는 민감성과 반응성과 같은 개별적인 양육행동이 아닌, 가정 내 전반적인 양육환경의 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가정양육환경은 Bradley와 Caldwell(1979)이 유아 가정환경검사척도(Early Childhood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EC-HOME)를 개발하면서 체계적으로 개념화되었다. 이들이 정의한 가정환경구성은 학령전기 유아가 성장하는 가정의 물리적인 안전성에서부터, 책과 장난감을 비롯한 학습적 자료, 상호작용에서 유아의 인지적 발달과 학습을 격려하는 자극의 제공, 그리고 어머니의 온정과 언어적 반응 및 상호작용 양식과 같이 유아발달의 직접적인 경험까지 일련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내 타당화 연구를 통해 이지연과 곽금주(2008)는 가정양육환경을 행동적인 영역과 물리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행동적인 영역에는 어머니가 학습과 발달을 격려하는 양육행동과 반응적인 상호작용행동을 포함하고, 물리적인 영역에는 학습자극 및 교구의 다양성과 주거환경의 수준을 포함하였다. 종합하면, 가정양육환경은 양육의 다양한 행동적인 측면과 가정 내 물리적 환경의 발달적합성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양육환경의 질적 수준이 높을 때,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인지적, 언어적으로 풍부하며, 전반적으로 온정적이면서 교육적인 가정환경은 유아의 인지와 언어, 사회성에 이르는 전반적 발달에 기여한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반응적인 양육을 제공하고, 책을 읽어주거나, 언어적 상호작용을 빈번하게 하며, 연령에 맞는 장난감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유아가 더 나은 발달적 결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입증되어 왔다(김혜경, 조성연, 2002; 박수진, 김명순, 2010; 이지연, 곽금주, 2008; 한명숙, 서선숙, 2013; Davis-Kean, 2005; Linver, Brooks-Gunn & Kohen, 2002; Roberts, Jergens, & Burchinal, 2005; Son & Morrison, 2010). 예를 들어, Son과 Morrison(2010)은 학령전기에 가정 내 환경이 자녀 발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을 때, 자녀의 언어발달과 학습적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가정양육환경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언어(이지연, 곽금주, 2008) 및 사회성 발달(김혜경, 조성연, 2002; 한명숙, 서선숙, 2013)이 더 잘 진행된다고 밝혀졌다. 더구나 학령전기 유아가 성장한 가정양육환경에 따라 학교 입학 후 학교 적응이나 학업성취 정도도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Morrison & Cooney, 2001) 가정환경구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유아 발달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환경구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나(김정미, 곽금주, 2007; 장영은, 2015; Bradley, Corwyn, Burchinal, McAdoo, & Coll, 2001; Davis-Kean, 2005, Votruba-Drzal, 2003) 빈곤(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Brooks-Gunn & Duncan, 1997; Guo & Harris, 2000; Linver et al., 2002), 또는 가족구조(김혜경, 조성연, 2002; Evans, Maxwell, & Hart, 1999)와 같은 요인이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어머니의 상황적, 심리적 요인이 자녀 발달에 적합한 교육적 가정환경을 구성하는 정도를 설명하는 정도를 밝힌 연구는 미비하다. 몇몇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가정양육환경의 질적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으나(장영은, 2015; Son & Morrison, 2010), 사회적 지지가 가정양육환경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가 영유아기 시기에 어머니가 경험한 사회적 지지와 우울이 유아기 자녀를 위한 가정양육환경 구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 자녀의 출생 이후 양육의 과정에서 가족구성원이나 친지, 친구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지가 많을 때, 어머니의 우울을 줄이고, 주변에서 받는 정서적, 물질적 도움이나 정보와 같은 사회적 지지는 우울의 감소를 통해 유아의 발달에 바람직한 교육적이고 학습적인 가정환경 구성에 기여할 것이라 가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 우울의 영향력은 자녀의 영아기 시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종단적 관계를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활용가능하다고 인지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사회적 관계망 내의 비전문적 구성원에게 받는 사회적 자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Gottlieb & Bergen, 2010).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그 예로는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또는 사교적 지지 등을 포함한다(Gottlieb & Bergen, 2010). 배우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사회적 관계망 내의 지인에게서 받는 지원은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양육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Erdwins, Burrardi, Casper, & O'Brien, 2001). Bronfenbrenner(1979)에 따르면, 어머니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으로부터 제공되는 도움을 바탕으로 어머니는 양육지식이나 방법을 배우고, 강화해 나간다. 즉, 사회적 관계망에 있는 지인들에게서 받는 지원은 어머니가 자녀발달에 적합한 양육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특히 처음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우, 부모역할로의 전이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과 생활방식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로감 및 정서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Bigner & Gerhardt, 2013). 첫 자녀를 둔 어머니 주변에서 양육기술에 대해 정보를 주거나, 자녀 양육에 대해 격려를 해주고, 또는 직접적으로 가사노동이나 자녀 돌봄에 도움을 주는 경우 어머니의 불안 및 우울이 감소하고 어머니 역할에 대한 만족이나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Leahy-Warren, McCarthy, & Corcoran, 2012; Reece & Harkless, 1998; Tarkka, 2003).

Belsky(1984)가 제시한 양육의 과정모델에 따르면, 부모가 경험하는 상황적인 특성이 그들의 정서적, 심리적 자원에 영향을 미쳐 자녀를 위한 보다 나은 양육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는 가족구성원, 친구, 또는 지역사회에서 받는 도움과 지지를 바탕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이겨내고(Koeske & Koeske, 1990), 어린 자녀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이정신, 최영희, 2010; 최형성, 정옥분, 2005; Leahy-Warren et al., 2012), 자녀발달에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Burchinal, Follmer, & Bryant, 1996). 또한 사회

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서석원, 이대균, 2014; Ceballo & McLoyd, 2002; Izzo, Weiss, Shanahan, & Rodriguez-Brown, 2000)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왔다.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 따르면 더 큰 사회적 관계망을 가진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질적으로 더 나은 가정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다(Burchinal et al., 1996). 하지만 전반적인 가정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나 경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가정양육환경은 집안의 전반적인 환경구성과 일상생활을 반영하며, 가족의 물질적,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정서적 자원과도 연관이 된다(Baharudin & Luster, 1998; Davis-Kean, 2005). 가정양육환경의 질은 가족구조나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양육의 단편적 행동보다도 자녀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상적 환경 내에 존재하는 양육의 전반적인 과정(process)을 나타내므로(Bradley, Caldwell, Rock, Hamrick, & Harris, 1988), 부모의 상황이나 심리상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양육환경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 도움 외에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유아기 자녀를 위한 가정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기제로 우울과 같은 심리적 안녕을 통한 간접적 경로를 가정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완충 효과(buffering effect)와 주효과(main effect)를 가질 수 있다(Cohen & Wills, 1985).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외부의 생활사건이나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주효과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 자체에 의해 삶의 만족을 느끼고,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가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보호적인 역할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의미한다(Armnston et al., 2005).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가족구성원 및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도구적, 정서적, 정보적 또는 관계적인 지지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 중에서도 첫 자녀 어머니의 우울에 관심을 두고 그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우울 뿐 아니라 어머니의 효능감(최형성, 정옥분, 2005) 및 역할만족(Erdwins et al., 2001)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나 양육스트레스(Weiss, 2002)와 같은 우울 외의 부정적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첫 자녀의 출생 후 어머니가 느끼는 우울은 산후 우울과도 관련되며, 우울이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격을 가졌으며(Zuroff, Blatt, Sanislow III, Bondi, & Pilkonis, 1999), 우울의 정도가 임상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는 자녀의 정신건강적인 문제 뿐 아니라 우울의 세대 간 전이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Weissman et al., 2005) 본 연구의 초점으로 삼게 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지각하거나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 때 더 낮은 우울감(이금진, 2008; 천희영, 옥경희, 2011; Cairney, Boyle, Offord, & Racine, 2003; Haslam, Pakenham, & Smith, 2006)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보다 나은 가정양육환경 구

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우울과 전반적인 가정 내 양육환경구성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연관하여 우울의 매개적인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역시 미흡하다. 하지만 첫 자녀를 기르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식 뿐 아니라 새롭게 적응해가는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건강한 심리적 상태에 기여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학령전기 자녀를 위해 다양한 장난감 및 책을 구비하거나,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는 언어적, 인지적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반응적인 양육을 통해 적합한 발달을 도모하는 노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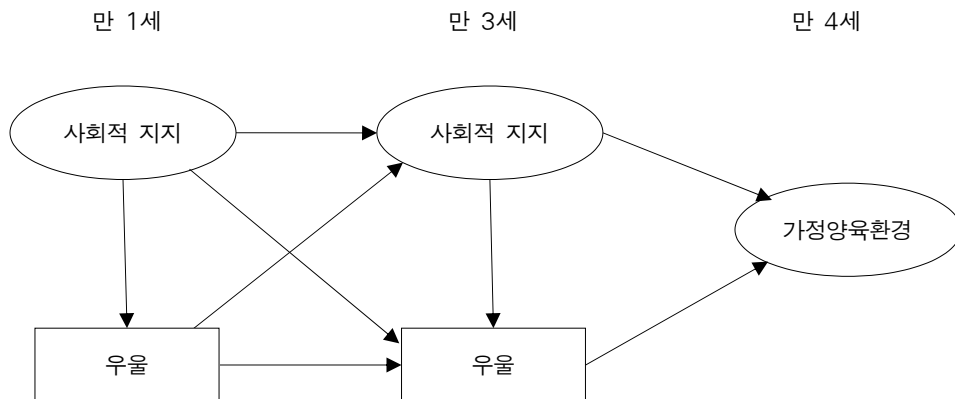
한편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이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주로 스트레스나 위기를 경험하고 있거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아 자녀를 둔 어머니(김교연, 2009; 이금진, 2008; 이숙자, 오수성, 2006; 이영주, 이귀옥, 1998; Bromley, Hare, Davison, & Emerson, 2004; Horton & Wallander, 2001; Weiss, 2002),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엄미선, 전동일, 2006; Ceballo & McLoyd, 2002), 빈곤층 어머니(Burchinal, Follmer, & Bryant, 1996; Hashima & Amato, 1994)와 같이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된 어머니의 양육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살핀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자원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나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론(Cohen & Wills, 1985)에 근거할 때, 건강한 일반 유아를 양육하는, 보다 대표성 있는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자녀의 발달과 더불어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역할을 종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양육이 자녀의 성장과 함께 부모에게도 새로운 지식과 적응이 요구되는 발달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Bigner & Gerhardt, 2013)에 근거한다. 즉, 영유아기를 통해 자녀의 발달은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한 경향이 있으며, 자녀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각 연령대에 적합한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Shaw & Bell, 1993). 특히 첫 자녀를 출생한 어머니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처음 시작하면서 양육에 대한 도움, 양육 관련된 정보와 지식, 새로운 역할 수행에 대한 정서적 지지 등 주변의 지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Leahy-Warren et al., 2012). 이처럼 어느 한 시점이 아닌, 자녀 출생 이후로부터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가 가능할 때,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 및 바람직한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Belsky(1984) 역시 그의 양육의 과정모델에서 사회적 지지를 부모의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맥락적인 변수라고 분류하였는데, 이는 유아의 발달 정도에 따른 상황과 맥락에 변화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우울 간의 관계는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상호호혜적일 수 있다. 자녀 출생 초기에는 신체적 피로감과 수면 부족, 영아기 자녀 건강에 대한 염려, 또는 수유 및 기저귀 갈기 등의 새로운 일상으로 인해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Leahy-Warren et al., 2012). 그런데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적 효과를 가진다고 해도, 이 둘 간의 관계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개인은 상황에 따라 사회적 지지라는 자원의 양적,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스트레스 또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상태는 주변의 도움을 찾고자 하는 의

욕이나 행동을 제한하게 되고, 이러한 위축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 역시 도움을 제공할 기회가 감소한다(Armstrong et al., 2005). 즉, 자녀가 영아기 때에 어머니가 느끼는 우울은 이후 사회적 지지의 추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첫 자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주로 산후우울증에 미치는 초기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다루고 있어(천희영, 옥경희, 2011; Haslam et al., 2006; Leahy-Warren et al., 2012), 자녀양육의 발달적 과정에서의 초기의 사회적 지지와 이후 어머니의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역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가정양육환경을 예측하는 자녀가 영아기일 때부터의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자녀 영아기에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 때, 우울을 덜 느끼게 되며, 이는 이후 자녀가 유아기에 이르렀을 때 더 많은 사회적 지지와 낮은 우울감으로 이어져, 자녀 발달을 돕는 가정양육환경 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종단적 연구설계는 변인간의 동시적 효과(concurrent effect)를 설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과관계 해석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며, 자녀 생애 초기 어머니가 지각했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지연 효과(lagged effect) 및 누적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초점은 시간의 경과와 따라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 우울을 통해 가정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와 우울 간의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데(Armstrong et al., 2005), 이러한 관계를 동시적인 양방향 경로로 설정하기 보다는, 종단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은 초기 어머니 우울이 이후의 사회적 지지의 추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차지연효과와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만 4세 유아 자녀를 위한 가정양육환경을 예측하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구성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첫 자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매개로 학령전기 자녀를 위한 가정양육환경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모형

가정하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회적 지지, 우울, 그리고 가정양육환경 간의 다양한 경로를 포함하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만 4세 유아의 가정양육환경의 선정은 만 3~5세경의 가정환경구성이 학령전기 유아의 언어, 인지 및 사회정서발달을 공고하게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장영은, 성미영, 2015; Bradley et al., 1988; Foster, Lambert, Abbott-Shim, McCarty, & Franze, 2005; Leventhal, Martin, & Brooks-Gunn, 2004)에 근거하였다. 특히 Bradley, Corwyn, Burchinal, McAdoo 그리고 Coll(2001)에 따르면, 영아기나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비해 만 3-5세 유아기의 가정환경에 책, 장난감과 같은 물리적 교구가 더 풍부하며, 인지적, 언어적으로도 다른 발달단계 시기 보다 더 활발한 상호작용이 오고가는 것으로 밝혀져, 그 시기의 중간인 만 4세 가정양육환경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상 시기로 선정하였다. 다양한 경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만 1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이 3년 뒤의 가정양육환경의 질적 수준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기 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후 사회적 지지 및 우울에 영향을 주어 만 4세 가정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에 참여하고 있는 2,150명의 어머니 중, 첫 자녀의 어머니이며 만 4세에 가정양육환경에 관한 조사에 응한 755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자녀가 만 1세, 만 3세, 그리고 만 4세 시기에 가정방문을 통한 조사로 수집되었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은 만 1세와 만 3세에 어머니 응답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고, 만 4세 가정양육환경은 어머니 면접을 통한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775)

변인	범위	n	%	변인	범위	n	%
자녀 성별	남	411	53.0	가구소득 (만원/월)	200만원 이하	93	11.5
	여	364	47.0		201~300만원	199	25.7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121	15.7	301~400만원	215	27.8	
	31세~40세	619	80.5	401만원 이상	267	35.0	
	41세 이상	29	0.8	어머니 취업	취업	300	39.3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1	0.1		학업	3	0.4
	고졸	199	25.9	미취업	460	60.3	
	대졸	523	68.0				
	대학원 이상	46	6.0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만 4세 조사 시 자녀의 성별은 53.0%가 남아, 47.0%가 여아였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54세($SD = 3.63$)였다. 연구대상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약 431.80원($SD = 348.65$)으로, 200만원 이하가 11.5%, 201~300만원이 25.7%, 301~400만원이 27.8%, 그리고 401만원 이상이 약 35.0%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39.7%가 취업 또는 학업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2. 연구도구

1) 사회적 지지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이재림과 옥선화(2001)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국아동패널에서 일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자녀가 만 1세와 만 3세일 때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5점 리커트 총 12개 문항으로, 정서적 지지(2문항), 정보적 지지(3문항), 사교적 지지(4문항), 그리고 도구적 지지(3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잠재변인으로, 기존의 네 하위 변인을 측정변인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일관성은 만 1세 Cronbach's $\alpha = .91$, 만 3세 Cronbach's $\alpha = .93$ 로 높았다.

2) 우울

어머니의 우울은 만 1세와 만 3세 자료수집에서 Kessler 등(2002)의 우울척도인 K6(Kessler et al., 2002)의 총 6개 문항의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울 점수의 평균은 만 1세 시기에 1.87($SD = .69$), 만 3세 시기에는 1.99($SD = .78$)이었고, 내적일치도는 두 측정시기 모두 Cronbach's $\alpha = .92$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가정양육환경

가정양육환경의 질은 Early Childhood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EC-HOME: Caldwell & Bradley, 2003)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EC-HOME은 3~6세 자녀를 둔 가정의 전반적인 양육환경의 질을 묻는 측정도구로서 총 8개의 하위요인, 5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해당내용에 대해 예(1), 아니오(0)로 응답하는 이분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양육환경은 8개의 하위요인 중 신뢰도가 낮은 세 개 영역을 제외하고, 언어자극, 반응성, 학습자극, 학습자료, 그리고 물리적 환경 5개 영역을 기초로 가정양육환경의 행동적 영역(언어자극, 반응성, 학습자극)과 물리적 영역(학습자료, 물리적 환경)의 하위문항을 각각 합산하여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선행연구에서 HOME의 하위영역을 어머니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상호작용 및 인지적 자극과 같은 행동적인 부분과 자녀발달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양육환경의 구성과 장난감 및 도서의 접근가능성을 반영하는 물리적 영역으로 구분한 것에(이지연, 광금주, 2008) 근거하였다.

언어자극은 부모가 대화, 모델링, 직접적인 지도 등을 통해 자녀의 언어발달을 독려하려는 것

을 의미하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의 향상을 위하여 이 중 5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언어자극 하위영역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63$ 이었다. 반응성은 유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과 온정적 상호작용을 묻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3$ 이었다. 학습자극은 가정 내에서 부모가 유아기의 중요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에 대하여 격려하고, 학습에 관여하는지에 대해 묻는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Cronbach's $\alpha = .75$). 학습자료는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난감, 책, 게임에 대한 아동의 접근 가능성을 측정하며, Cronbach's $\alpha = .68$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환경은 가정 내 실내환경이 안전하고 흥미로운지, 활동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 환경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언어자극, 반응성, 학습자극을 합산한 가정양육환경의 행동적 영역(총 19문항)의 평균은 $.79(SD = .10)$ 이며, 학습자료와 물리적 환경 점수의 총합인 물리적 영역(총 18문항)의 평균은 $.87(SD = .10)$ 였다.

4) 통제변인

본 연구에 포함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Koeske & Koeske, 1990; Schulz et al., 2006)와 우울(박정희, 유영주, 1999), 그리고 가정양육환경(장영은, 2015; Bradley et al., 2001; Davis-Kean, 2005; Evans et al., 1999; Son & Morrison, 2010)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 성별(남아 = 1, 여아 = 0), 어머니 학력연한(년), 월평균 가족소득(만원), 그리고 어머니 취업여부(취업 = 1, 미취업 = 0)이 통제변인으로 구조방정식모델링 분석에 포함되었다.

3.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변인의 기술적 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기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우울, 그리고 가정양육환경 변인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만 1세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만 3세 사회적 지지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r = .41(p < .001)$ 에서 $r = .53(p < .001)$ 사이로 대체로 중간 이상의 관계성을 나타냈다. 자녀가 만 1세일 때와 만 3세일 때 측정한 어머니의 우울 간에도 $r = .47(p < .001)$ 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하위변인들과 우울 간의 부적의 상관관계 역시 유의하여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하위변인들과

〈표 2〉 분석변인의 기술통계량

(N = 755)

변인	최소값	최대값	M	SD
정서적 지지(만 1세)	1.00	5.00	3.89	.81
정보적 지지(만 1세)	1.00	5.00	3.83	.76
사교적 지지(만 1세)	1.00	5.00	3.91	.70
도구적 지지(만 1세)	1.00	5.00	3.94	.72
정서적 지지(만 3세)	1.00	5.00	3.79	.78
정보적 지지(만 3세)	1.00	5.00	3.74	.74
사교적 지지(만 3세)	1.25	5.00	3.88	.66
도구적 지지(만 3세)	1.00	5.00	3.87	.71
우울(만 1세)	1.00	4.67	1.87	.69
우울(만 3세)	1.00	5.00	1.99	.78
행동적 가정양육환경	.00	.84	.79	.10
물리적 가정양육환경	.17	1.00	.87	.10

〈표 3〉 사회적 지지와 우울 및 가정양육환경 간의 상관관계

(N = 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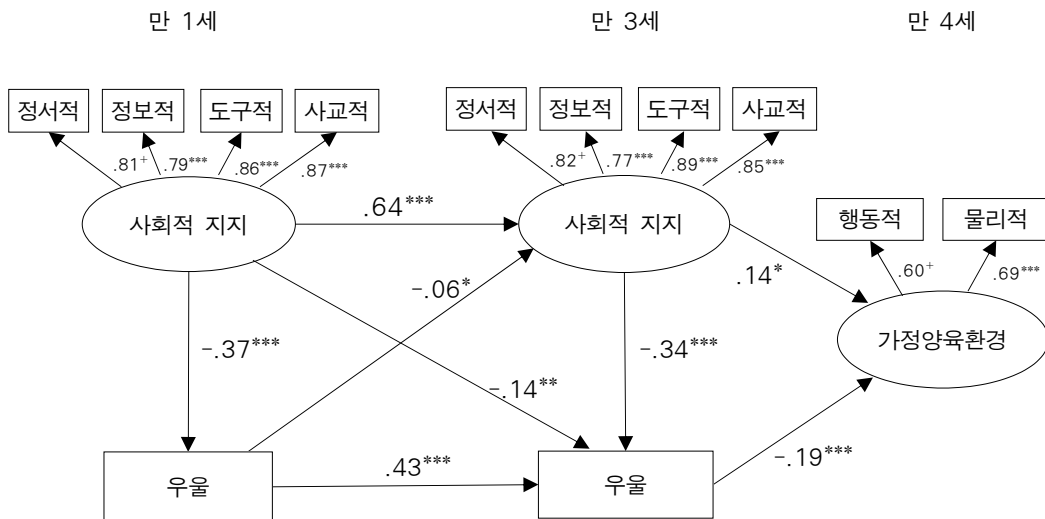
변인	우울 (만 1세)	우울 (만 3세)	행동적 가정양육환경 (만 4세)	물리적 가정양육환경 (만 4세)
정서적 지지(만 1세)	-.33***	-.18***	.15***	.18***
정보적 지지(만 1세)	-.29***	-.17***	.08***	.13***
사교적 지지(만 1세)	-.29***	-.18***	.10***	.15***
도구적 지지(만 1세)	-.29***	-.19***	.13***	.19***
정서적 지지(만 3세)	-.25***	-.32***	.07*	.05*
정보적 지지(만 3세)	-.23***	-.25***	.01	.04*
사교적 지지(만 3세)	-.23***	-.29***	.09*	.11**
도구적 지지(만 3세)	-.26***	-.32***	.06*	.09*
우울 (1세)	—	.47***	-.15***	-.15***
우울 (3세)	—	—	-.11**	-.15***

* $p < .05$, ** $p < .01$, *** $p < .001$.

가정양육환경의 질적 수준 간의 상관관계는 만 3세 정보적 지지와 행동적 가정양육환경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나타내,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 때 학령전기 유아 자녀를 위한 가정양육환경 구성이 보다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우울 역시 가정양육환경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4세에 측정된 가정양육환경은 만 3세에 비해 만 1세 사회적 지지 및 우울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자녀 영아기 시기의 어머니의 상황적,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제시된 개념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연구모형에 설정된 경로를 포함하여 전체적 관계설정이 주어진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나타내는 모델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hi^2(80) = 321.80$, $p < .001$ 로 비록 카이자승 통계는 유의하였으나, CFI = .948, TLI = .911, NFI = .932, RMSEA = .062로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모델적합도를 나타내었다. χ^2 통계량의 경우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큰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Bentler & Bonett, 1980; Kline, 2005), 본 연구에서처럼 표본의 크기가 큰 모형의 경우, 표본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모형의 복잡성을 함께 고려하는 모델적합도 지수인 TLI와 RMSEA 등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홍세희, 2000).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우울, 그리고 가정양육환경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경로별로 살펴보면, 먼저 만 1세 시기의 사회적 지지는 만 3세 시기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영향($\beta = .64$, $p < .001$)을 미치고, 만 3세 시기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이후 학령전기 유아를 위한 가정양육환경의 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4$, $p < .001$). 자녀가 만 1세 때 어머니가 가졌던 우울은 만 3세 시기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beta = .43$, $p < .001$), 자녀 만 3세 시기 어머니의 우울은 가정양육환경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하였다($\beta = -.19$, $p < .001$). 즉, 첫 자녀 출생 후 초기 3년 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고 우울감이 낮을수록 이후 학령전기 자녀를 위해 반응적이고, 학습적 상호작용과 언어적 자극이 적절하게 존재하며 자녀의 발달과 흥미에 부합



[그림 2]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및 우울과 가정양육환경 간의 종단적 구조모형(최종모형)

⁺ 고정변인,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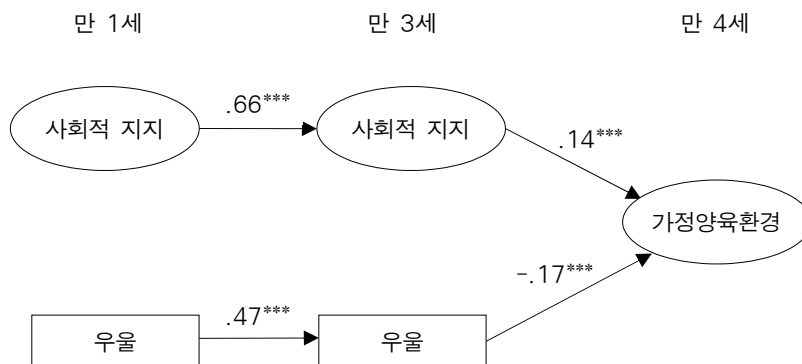
주. 분석에 통제변인이 포함되었으나 제시하지 않음.

하는 양질의 가정양육환경 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만 4세의 가정양육환경의 변량 중 약 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 가정양육환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된 경로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우울감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만 1세 $\beta = -.37, p < .001$, 만 3세 $\beta = -.34, p < .001$). 만 3세 시기의 어머니의 우울이 가정양육환경의 유의한 예측요인임을 고려할 때, 만 1세 시기의 사회적 지지와 만 3세 시기의 사회적 지지 모두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 가정양육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가정했던 것과 같이 자녀가 만 1세 경 어머니가 느꼈던 우울이 낮을수록 어머니는 자녀가 만 3세에 이르렀을 때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6, p < .05$). 즉, 자녀 출생 이후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어머니의 우울이 낮고, 이 시기 우울을 적게 경험할 경우, 자녀 발달과 더불어 이후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져 초기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장기적인 긍정적 영향력이 존재함을 시사하였다.

비록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모델적합도도 우수하며, 개념적 모형에서 가정했던 관계들의 유의성 역시 검증되었으나, 여전히 대안적 모형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직접적 경로만을 설정한 모형과의 비교를 추가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Davis-Kean, 2005)에 근거하여 다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자녀 영아기와 유아기의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통하여 학령전기 양질의 가정양육환경 구성을 예측한다는 간접적인 영향력의 설정이 적절하지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들을 제외하고 사회적 지지와 우울이 각각 독립적으로 가정양육환경을 예측하는 대안적 모형([그림 3])을 구성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적 모형을 비교하여 대안적 모형의 모델적합도가 더 우수하다면, 대안적 모형이 주어진 데이터에 더 적절하게 부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적 모형은 연구모형과는 달리 우울을 통한 간접경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모형 비교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면, 연구모형에서 가정



[그림 3]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직접적 경로만을 설정한 대안적 모형

** $p < .01$, *** $p < .001$.

간접적 영향력의 설정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대안적 모형의 적합도가 연구모형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거나, 더 나쁜 수준일 때, 간접경로의 설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Davis-Kean, 2005). 대안적 모형과 본 연구모형을 비교한 결과, 대안적 모형의 모델적합도는 $\chi^2(84) = 467.130, p < .001, CFI = .917, TLI = .866, NFI = .901, RMSEA = .077$ 로서 기존의 연구모형에 비해 악화된 모델적합도를 보였으며, 두 모형 간 모델적합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Delta\chi^2(4) = 145.33, p < .001$). 즉, 우울을 통한 간접적 경로를 설정했던 본 연구의 모형은 사회적 지지와 우울 각각의 직접적 효과만을 설정한 대안적 모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나은 모델적합도를 보여, 간접적인 영향력의 설정이 적절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이 독립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령전기 자녀를 위한 바람직한 가정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학령전기 가정양육환경을 예측하는 몇 가지 간접적인 경로를 설정하였다. 먼저 부트스트래핑기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만 1세 사회적 지지(표준화된 계수 = .12, 신뢰구간 .062~.182, $p < .01$)와 만 3세 사회적 지지(표준화된 계수 = .06, 신뢰구간 .033~.101, $p < .01$)가 가정양육환경을 예측하는 간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AMOS에서는 부트스트래핑기법을 바탕으로 간접효과의 통계치와 검증결과를 제공하긴 하지만, 모두 가능한 간접적인 경로에 대한 전체적 효과 크기와 이에 대한 검증만을 제공하므로, 개별적인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두 개 이상의 매개변인을 포함한 간접경로의 유의성을 sobel test로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들 경로에 대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계수 간 곱을 통해 검증하는 z-score 접근법(Hayes, Preacher, & Myers, 2011)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간접경로 중에 만 1세 사회적 지지에서 만 1세 우울 및 만 3세 사회적 지지를 통한 경로를 제외하고 다른 간접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첫 자녀가 영아기 일 때 경험한 사회적 지지는 이후의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을 통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만 4세 학령전기 자녀를 위한 가정양육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표 4> 첫 자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가정양육환경을 예측하는 간접경로의 검증

간접경로	z-score
사회적 지지 1세 → 사회적 지지 3세 → 가정양육환경	2.47*
사회적 지지 1세 → 우울 3세 → 가정양육환경	2.10*
사회적 지지 1세 → 사회적 지지 3세 → 우울 3세 → 가정양육환경	2.87**
사회적 지지 1세 → 우울 1세 → 우울 3세 → 가정양육환경	3.14***
사회적 지지 1세 → 우울 1세 → 사회적 지지 3세 → 가정양육환경	0.64
사회적 지지 3세 → 우울 3세 → 가정양육환경	2.96**

* $p < .05$, ** $p < .01$, *** $p < .001$.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은 우울이 다시 어머니의 이후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양육환경에까지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리라는 가정은 기각되었다($\alpha = .64, n.s.$).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첫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가 자녀 영아기와 유아기에 걸쳐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자녀 학령전기 시기의 가정양육환경을 구성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한국아동패널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 중 첫 자녀의 어머니 75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우울과 가정양육환경 간의 종단적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첫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 영아기에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우울은 2년 뒤 어머니가 느끼는 사회적 지지와 우울을 예측하였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첫 자녀 어머니의 부모역할 적응에 중요하다고 알려진 사회적 지지(Leahy-Warren et al., 2012; Tarkka, 2003)는 자녀 양육과 함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녀 양육 초기에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거나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지속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둘째, 첫 자녀 어머니가 자녀 영아기인 만 1세 경 및 유아기인 만 3세 경에 받은 사회적 지지는 학령전기 양육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어머니가 주변의 가족원이나 친지로부터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녀의 발달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 가정양육환경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더구나 자녀 영아기 시기인 만 1세 때의 사회적 지지가 이후 자녀가 만 3세경 되었을 때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만 4세 가정양육환경에 기여하는 지연효과 또한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환경개선을 위한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힌 Kendrick 등(200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양육지식의 교육이나 조언, 정서적 지지, 자녀 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 또는 지역공동체 서비스와의 연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적 지지가 실제 가정환경구성(HOME) 점수를 향상시켰다. 즉, 핵가족화가 보편화되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어머니의 개인적인 사회적 지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첫 자녀 어머니를 위한 정보나 교육의 제공 이외에도 정서적인 격려와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는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첫 자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통해 가정양육환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접경로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과 대안적 모형과의 비교 등 다각적인 분석에서 사회적 지지와 가정양육환경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의 매개효과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유익한 역할을 한다는 Cohen과 Wills(1985)의 이론을 지지한다. 그리고 첫 자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산후 우울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Leahy-Warren

et al., 2012)를 확장하여, 자녀 영아기 및 유아기의 사회적 지지 또한 어머니의 우울감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힌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의 우울 간의 유의한 관계를 밝힌 연구결과(이금진, 2008; 천희영, 옥경희, 2011; Cairney et al., 2003)를 바람직한 가정양육환경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이다. 반면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은 우울이 이후 어머니의 사회적 추구 행동에 영향을 주어, 두 변인 간의 상호적 영향력은 존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가정양육환경 구성에까지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지지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쳐 가정양육환경을 예측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자녀를 처음 양육하는 어머니가 남편을 비롯한 가족구성원 또는 주변 친지들과의 관계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심리적으로 침체되거나 위축되는 경향이 적으며, 그 결과 학령전기 자녀에게 필요한 정서적, 인지적, 언어적 자극과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가정양육환경 구성에 기여하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을 영향력은 자녀 양육 초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 기로의 전이 시기에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양육 지원이 가지는 장기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사회적 지지는 양육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조력과 같은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가정양육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에, 정서적, 관계적 지원을 통해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어머니로 하여금 보다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구성할 정서적 자원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자녀 양육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부모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 지식에 대한 정보제공 및 주양육자로서의 심리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소규모의 모임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지지에서 취약할 수 있는 저소득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의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개발, 운영하는 실천적 접근도 가능하다.

본 연구는 대규모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우울과 가정양육환경의 구조적 관계를 종단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지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 역시 지니고 있다. 첫째, 자료의 특성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저소득층의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졸 이상의 학력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진다. 빈곤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가정환경의 학습적, 물리적, 정서적 측면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가정양육환경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으며, 가정양육환경의 질적 수준이 인종이나 어머니 학력, 또는 어머니의 언어능력 등에 의해 설명되는 경향이 있었다(Brooks-Gunn, Klebanov, & Liaw, 1995). 이는 어머니의 학력과 소득 수준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가정양육환경 구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힌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이 처한 맥락에 따라 사회적 지지 외에 보다 구조적인 변인에 의해 가정양육환경이 설명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이나 구조적 측면, 또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원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지가 정보적, 도구적,

정서적, 또는 관계적인 기능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또는 사적인 관계망 내의 사회적 지지인지 공공서비스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지인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를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이재림, 옥선화, 2001; Leahy-Warren, McCarthy, & Corcoran, 2011), 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모형은 전체 어머니를 대상으로 분석되기 전에 첫 자녀 어머니라는 특정 대상에 국한하여 분석되었다. 자녀 영유아기의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우울이라는 경로를 통해 가정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의 모형은 첫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한계점을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제안하면, 사회적 지지의 내용 및 구조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윤주와 진미정(2013)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 사회적 지원의 접근가능성과 동원가능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사회적 지지의 제공원이나 내용적 측면 역시 고려된다면 첫 자녀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과 가정양육환경을 설명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가정양육환경에서 더 나아가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Armstrong 등(2005)은 정서장애 자녀의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탄력성을 예측하는 경로에서 부모의 정서적 안녕감과 양육특성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가설적 연구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 및 가정환경 구성을 통해 자녀의 인지, 정서 또는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는 간접적인 경로설정 및 검증이 추후연구에서 진행되길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만 3 세 아동에 대한 빈곤, 부모변인, 가정환경 및 아동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3), 83-98.
- 권경숙 (2008).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 어머니들의 양육특성과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229-255.
- 김교연 (2007). 문제중심대처전략을 매개로 한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련-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정신지체인의 어머니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33, 5-33.
- 김정미, 곽금주 (2007). 취학 전 빈곤아동에 대한 부모, 가정환경 자극,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 탐색. **아동학회지**, 28(4), 305-317.
- 김혜경, 조성연 (2002). 연구논문: 가족형태에 따른 가정환경과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 **한국가족복지학**, 7(2), 3-16.
- 박수진, 김명순 (2010).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18-24개월 영아의 가정문제환경과 어머니의 상호반응적 교수행동과 영아의 어휘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1(4), 15-27.
- 박정희, 유영주 (1999). 주부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관계 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 4(1), 91-119.
- 서석원, 이대균 (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2), 135-158.
- 엄미선, 전동일 (2006).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과 사회적 지지. **사회복지리뷰**, 11, 75-108.
- 이금진 (2008).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망과 지원정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1), 43-61.
- 이대균, 황주미 (2008). 초보 어머니들의 양육 특성과 어머니됨의 변화 과정.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71-403.
- 이숙자, 오수성 (2006). 상담 일반: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적극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7(1), 27-45.
- 이영주, 이귀옥 (1998).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9(2), 19-31.
- 이영환, 한영숙 (2005). 초임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변인 연구 출산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41(6), 41-62.
- 이윤주, 진미정 (2013). 영유아기 기혼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사회자본과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51(2), 229-239.
- 이재림, 옥선화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 이정신, 최영희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1), 19-32.
- 이지연, 광금주 (2008). 사회, 정서발달: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 장영은 (2015). 학령전기 자녀의 가정환경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2), 19-39.
- 장영은, 성미영 (2015). 유아의 가정환경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언어발달의 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1-18.
- 천희영, 옥경희 (2011). 한국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와 양육 관련 체계변인간의 관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53-167.
- 최형성, 정옥분 (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인과관계 모형: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12(1), 51-67.
- 한명숙, 서선숙 (2013).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환경자극 및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간의 구조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2(1), 27-47.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rmstrong, M. I., Birnie-Lefcovitch, S., & Ungar, M. T. (2005). Pathways between social support,

- family well being, quality of parenting, and child resilience: What we know.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4(2), 269-281.
- Baharudin, R., & Luster, T. (1998).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the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achiev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19(4), 375-403.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606.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igner, J. J., & Gerhardt, C. (2013).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NY: Pearson.
- Bradley, R. H., & Caldwell, B. M. (1979).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a revision of the preschool scale.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4(3), 235-244.
- Bradley, R. H., Caldwell, B. M., Rock, S. L., Hamrick, H. M., & Harris, P. (1988).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Development of a home inventory for use with families having children 6 to 10 years old.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3(1), 58-71.
- Bradley, R. H., Corwyn, R. F., Burchinal, M., McAdoo, H. P., & Coll, C. G. (2001). The home environments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Part II: Relations with behavioral development through age thirteen. *Child Development*, 72(6), 1868-1886.
- Bradley, R. H., Corwyn, R. F., McAdoo, H. P., & Coll, C. G. (2001). The home environments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part I: Variations by age, ethnicity, and poverty status. *Child Development*, 72(6), 1844-1867.
- Bromley, J., Hare, D. J., Davison, K., & Emerson, E. (2004). Mothers supporting children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s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services. *Autism*, 8(4), 409-423.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 Brooks-Gunn, J., & Duncan, G. J.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55-71.
- Brooks-Gunn, J., Klebanov, P. K., & Liaw, F. R. (1995). The learning, physical, and emotional environment of the home in the context of poverty: The Infant Health and Development Program.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1), 251-276.
- Burchinal, M., Follmer, A., & Bryant, D. (1996). The relations of maternal social support and family structure with maternal responsiveness and child outcomes among African-American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1073-1083.
- Cairney, J., Boyle, M., Offord, D. R., & Racine, Y. (2003).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single and married mother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8(8), 442-449.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 Little Rock: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 Ceballo, R., & McLoyd, V. C. (2002).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in poor, dangerous neighborhoods. *Child Development, 73*(4), 1310-1321.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utrona, C. E. (1984). Social support and stress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4), 378-390.
- Davis-Kean, P. E. (2005). The influence of parent education and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the indirect role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the home environ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294-304.
- Erdwins, C. J., Buffardi, L. C., Casper, W. J., & O'Brien, A. S. (2001). The relationship of women's role strain to social support, rol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Family Relations, 50*(3), 230-238.
- Evans, G. W., Maxwell, L. E., & Hart, B. (1999). Parental language and verbal responsiveness to children in crowded homes. *Developmental Psychology, 35*(4), 1020-1023.
- Foster, M. A., Lambert, R., Abbott-Shim, M., McCarty, F., & Franze, S. (2005). A model of home learning environment and social risk factors in relation to children's emergent literacy and social outcom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0*(1), 13-36.
- Gottlieb, B. H., & Bergen, A. E. (2010). Social support concepts and measur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9*(5), 511-520.
- Guo, G., & Harris, K. M. (2000). The mechanisms mediating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intellectual development. *Demography, 37*(4), 431-447.
- Hashima, P. Y., & Amato, P. R. (1994). Poverty, social support, and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5*(2), 394-403.
- Haslam, D. M., Pakenham, K. I., & Smith, A. (2006). Social support and postpartum depressive symptomatology: The mediating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7*(3), 276-291.
- Hayes, A. F., Preacher, K. J., & Myers, T. A. (2011). Mediation and the estimation of indirect effects in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In E. P. Bucy & R. L. Holbert (Eds.), *Sourcebook for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s, measures, and analytical techniques* (pp. 434-465). NY: Routledge.
- Horton, T. V., & Wallander, J. L. (2001). Hope and social support as resilience factors against psychological distress of mothers who care for children with chronic physical conditions. *Rehabilitation Psychology, 46*(4), 382-399.
- Izzo, C., Weiss, L., Shanahan, T., & Rodriguez-Brown, F. (2000). Parental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 Mexic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20(1-2), 197-213.
- Kendrick, D., Elkan, R., Hewitt, M., Dewey, M., Blair, M., Robinson, J., et al. (2000). Does home visiting improve parenting and the quality of the home environmen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82(6), 443-451.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T., et al.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ress.
- Koeske, G. F., & Koeske, R. D. (1990).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al stre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0(3), 440-451.
- Krieg, D. B. (2007). Does motherhood get easier the second-time around? Examining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quality among mothers having their first or second child.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7(2), 149-175.
- Leahy-Warren, P., McCarthy, G., & Corcoran, P. (2011). Postnatal depression in first-time mothers: prevalence and relationships between functional and structural social support at 6 and 12 weeks postpartum.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5(3), 174-184.
- Leahy-Warren, P., McCarthy, G., & Corcoran, P. (2012). First-time mothers: social support, maternal parental self-efficacy and postnatal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1(3-4), 388-397.
- LeMasters, E. E. (1957). Parenthood as crisis.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4), 352-355.
- Leventhal, T., Martin, A., & Brooks-Gunn, J. (2004). The EC-HOME across five national data sets in the 3rd to 5th year of life. *Parenting*, 4(2-3), 161-188.
- Linver, M. R., Brooks-Gunn, J., & Kohen, D. E. (2002). Family processes as pathways from income to young children's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8(5), 719-734.
- Morrison, F., & Cooney, R. (2001). Parenting and academic achievement: Multiple paths to early literacy. In M. Bristol-Power (Ed.), *Parenting and the child's world: Influences on academic, intellectual,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pp. 141-16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Reece, S. M., & Harkless, G. (1998). Self-efficacy, stress, and parental adaptation: Applications to the care of childbearing families. *Journal of Family Nursing*, 4(2), 198-215.
- Roberts, J., Jergens, J., & Burchinal, M. (2005). The role of home literacy practices in preschool children's language and emergent literacy skill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8(2), 345-359.
- Shaw, D. S., & Bell, R. Q. (1993). Developmental theories of parental contributors to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1(5), 493-518.
- Schulz, A. J., Israel, B. A., Zenk, S. N., Parker, E. A., Lichtenstein, R., Shellman-Weir, S., et al.

- (2006). Psychosocial stress an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of relationships between income, length of residenc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frican American women on Detroit's eastside. *Social Science & Medicine*, 62(2), 510-522.
- Son, S. H., & Morrison, F. J. 2010. The nature and impact of changes in the home learning environment on growth of language and academic skills of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6(5), 1103-1118.
- Tarkka, M. T. (2003). Predictors of maternal competence by first-time mothers when the child is 8 months old.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1(3), 233-240.
- Votruba-Drzal, E. (2003). Income changes and cognitive stimulation in young children's home learning environ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2), 341-355.
- Weiss, M. J. (2002). Hardiness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stress in mothers of typical children, children with autism, and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Autism*, 6(1), 115-130.
- Weissman, M. M., Wickramaratne, P., Nomura, Y., Warner, V., Verdeli, H., Pilowsky, D. J., et al. (2005). Families at high and low risk for depression: a 3-generation stud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1), 29-36.
- Zuroff, D. C., Blatt, S. J., Sanislow III, C. A., Bondi, C. M., & Pilkonis, P. A. (1999). Vulnerability to depression: reexamining state dependence and relative stabi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1), 76-89.

논문투고: 16.06.07
수정원고접수: 16.07.20
최종게재결정: 16.07.22